

염리동 마을기업의 식품 비즈니스 “솔트카페”

Food Business Of Yeomridong Town Corporate "Salt Cafe"

박진서 | (주)정앤서컨설팅

Park JinSeo | JEONGANSWER Consulting CO., Ltd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정의¹⁾하고, 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1,300개의 마을기업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1순위²⁾로 “마을기업 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을 고른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데 이는 사업초기에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한 경우가 크다. 따라서 성공사례 평가를 통해 식품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사업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서울 염리동 마을기업인 솔트카페에서 영광·고창의 천일염 공동브랜드인 ‘천혜보금’ 천일염도 팔고, 천혜보금을 넣어 만든 쿠키도 커피와 함께 팔고 있으며, 설립 1년만에 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현재 한 달 700만원 정도 매출에 10%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다. 외부 지원금은 없지만 솔트카페가 소문이 나면서 선물용으로 천혜보금을 구입하는 단체도 많이 늘었다. 이런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61개 지자체에서 2,000여명이 견학을 하였다.

염리동과 천일염

서울 마포구의 염리(鹽里)동은 말 그대로 ‘소금 마을’을 뜻한다. 과거 소금 창고가 있어 이 일대에 소금 장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마포구에서 마지막 남은 달동네 염리동이 소금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며 마을의 정체성을 회

복하고자, 2008년 2월 당시 신임 동장으로 마을에 부임한 장종환 동장(현 서교동장)이 마을의 토박이들을 모아 ‘창조적 소수’라고 이름 붙이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와 예술을 통해 마을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염리창조마을은 2008년과 2009년 연속으로 마을 만들기 분야에서 마포구 최우수 등이 되어 사업

1) 송두범, 박춘선, 김중수, 장효안, 홍은일,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과제, 충남리포트, 77, 2013

2) 신경희,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비를 지원받았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는, 동 단위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이라 보기 힘들 만큼의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예산을 기반으로 ‘똑똑한 소금마을 만들기’ 사업을 벌였는데, 이는 2011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주목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천일염을 매개로 한 어촌과 도시의 협력사업”을 제안하면서 천혜보금 사업이 함께 시작되었고, 2011년 5월 마을기업 ‘솔트카페’³⁾는 이렇게 탄생했다(Fig. 1).

“솔트카페” 비즈니스모델 개발과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천일염을 주제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염리동을 주목한 이유는 중간유통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천일염 유통 현

실에서 천일염생산자의 수취가격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소비자 직거래가 시도되고 있으나, 전체 천일염 유통규모의 5%만이 직거래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천일염 소규모 생산지역인 영광·고창·무안은 생산구조의 불균형으로 지속적인 유통기반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염리동(鹽里洞)은 ‘서울로 소금을 공급하던 소금배가 드나들고 소금시장이 있어 예로부터 소금장수가 많이 살았다.’는 지명 유래에 착안해 ‘소금’을 활용한 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산지·소비자 연계형 Salt Eco-Tourism 실현의 최적지로 주목하게 되었다.

글로벌 소금 브랜드인 프랑스 게랑드소금 체험을 위해 매년 150만명 이상이 게랑드 지역을 방문하고 있고, 게랑드 소금 관광객을 활용한 체험마케팅이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위한 선순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체



Fig. 1. Image of Yeomridong Town Corporate “Salt Cafe”

3) 농어촌자원개발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2차년도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2010, 9

힘을 통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소비지의 천일염직거래센터와 생산지의 천일염생산시설 등을 연계하는 생산지·소비지 연계형 Salt Eco-Tourism 실현을 위한 연계발전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런 양자의 의견이 접근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을 염리동은 서울시의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 행정안전부의 마포구 염리동 마을기업 사업 개요

 - 사업명 : Salt Cafe(천일염 직거래 센터) 운영
 - 사업장위치 : 마포구 염리동 147번지 등 염리동 일대
 - 추진주체 :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 사업내용
 - 천일염 직거래 판매 및 천일염 관련 상품 판매
 - 주민(소비자) 대상 천일염 교육과정 운영
 - 천일염 생산지 연계 체험관광 지원

비즈니스 모델로서 “솔트카페”가 선정된 이유는 염리동이 천일염이 모이는 항구라는 상징성 이외에 천일염이 식품문화에서 가지는 위치를 주목하였다. 유럽에 커피가 소개되면서 제일 처음 커피에 넣기 시작한 것이 소금이었으며 이런 솔트커피는 아직도 유럽에 문화로 남아있어 좋은 아이디어로서 선택되었다. 또한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역민들이 마을기업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정도가 중요한데 염리동은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마을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상품화를 해보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지는 마을 기업인 솔트(salt)카페가 문을 열게 된 원동력이다(Fig. 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⁴⁾을 통해 염리동 마을기업을 지원한 목적인 천일염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확산을 위해 도시민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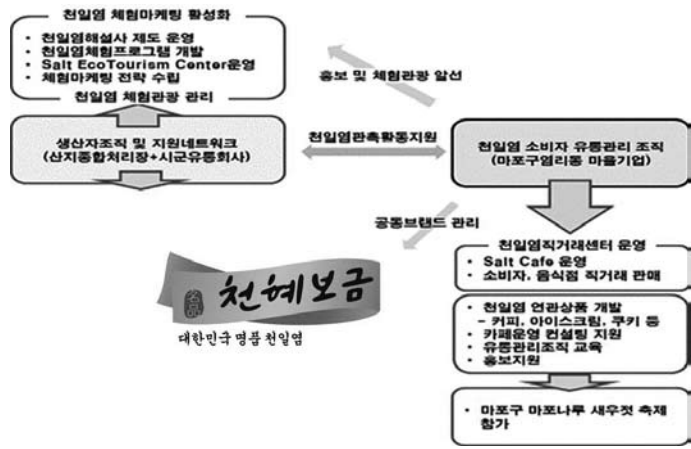


Fig. 2. Business of Yeomridong Town Corporate

4) 농어촌자원개발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2차년도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2010. 9

직을 구성하여 천일염 생산자 조직과 연계한 유통 모델을 개발하고자, 천일염연계협력사업단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는 마포구의 지역공동체를 천일염소비자 유통관리조직으로 선정하고, 해당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장(Salt Cafe)을 직거래센터로 지정하여 천일염 연계협력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염리동마을기업의 역할을 Salt Cafe 운영(천일염커피, 아이스크림, 쿠키 등 판매, 시군유통회사(고창군, 영광군) 천일염 판촉활동 지원, 식탁용 천일염, 식자재 천일염 판매, 천일염 원산지표시 음식점 관리, 천일염 체험관광 알선, 천일염 연계협력사업 홍보 등으로 규정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참여자에 대한 천일염 유통관련 교육 지원, 서울시내 천일염 판매촉진 행사 지원, 직거래센터(Salt Cafe) 운영 컨설팅 지원, Salt Cafe 판매제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지 및 홍보 지원을 추진하였다.

염리동주민센터 2층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마을을 상징하는 소금을 테마로 한 이색 카페다. 카페의 한쪽 벽에는 염리동에 얽힌 소금 역사를 설명하는 코너를 만들었고, 전남 영광·무안·고창에서 생산한 고급 천일염 브랜드인 '천혜보금'을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백석대 외식학부에 천일염을 넣은 쿠키와 음료 메뉴 개발을 의뢰하고 이를 솔트카페에 제공했다.

추진성과

우선 2011년 동주민센터 2층에 '솔트카페'를 개점했고,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 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 카페는 문을 연 지 1년이 채 못된 2012년 7월 현재 매출이 흑자로 돌아서고 직원 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낳는 등 선전하고 있다. 천일염이 함유된 커피, 과자 같은 메뉴를 주로 내놓았다. 천일염은 지식경제부 선정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에 따라 전남 영광군, 고창군 등에서 공급 받는다. 또 경력 단절 여성을 우선 채용, 지역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브랜드 개발 문제로 2011년 5월에야 소비자들에게 첫선을 보인 '천혜보금'은 한 달 사이에만 100포 이상이 나가 270만원가량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런 성과가 마을만들기 사업,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등에서 우수 사례로 꼽히면서 6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예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만들었다. 이 자료에다 소금마을의 구상과 탄생 과정을 모두 담았다(Fig. 3).⁵⁾

솔트카페는 이제 염리동 주민들의 삶에서 없어서 안될 활력소가 됐다. 염리동주민센터 2층에 있는 독서실을 개조한 솔트카페에는 하루 1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바로 옆에 있는 독서실도 더 활성화됐다. 수익금으로 신디사이저를 구입해 마을의 작은 음악회를 매달 열고 있다. 이곳은 일회용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200원, 자신의 컵을 사용하면 500원 할인해주는 친환경카페이기도 하다.

나아가 '소금길' 사업으로 확대했다. 범외에 취약한 1.7km 구간을 산책로로 꾸몄다. 여기에 소금

5) 김남희, 달농네가 문화와 역사로 되살아나다, 여성신문, 2012.07.20



Fig. 3. Coffee and Salt Sale of “Salt Cafe”

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 소금을 테마로 한 벽화들을 그려 넣었다. 아울러 전봇대마다 발광다이오드(LED) 번호 표시등, 공한지 쉼터, 안전지킴이 비상벨 등을 설치했다. 그 결과 주민들의 범죄신고 전화가 30%나 줄어드는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Fig. 4).

한편 염리동은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에 그치지 않고 소금길의 전초기지가 될 ‘소금나루’ 조성 등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공동체 사업 방안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

소금나루는 상수도 폐가압장인 대흥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소금길 활성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맡을 곳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창의학습 및 주민교류를 위한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똑똑한 소금마을 만들기’ 사업은 세대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어울리고 만나며 서로에게 배우는 프



Fig. 4. Salt road of Yeomridong Town Corporate

로그래밍이 주가 되어 구성됐다. 청소년과 어르신이 일대일 결연이 되는 것으로, 10대는 70대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아이들은 어르신께 마을의 소금 정신을 배운다. 이밖에도 마을 통장들에게 민간 복지를 교육해 주민 가까이에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하는 ‘통장복지사’ 프로그램이나, 마을 소식지 발간, 도시농업 등이 있다.⁶⁾

염리동 마을 기업의 후속사업은 염리동을 기점으로 천일염의 판로를 서울 전역으로 개척하고 온라인 매장도 오픈할 예정이다.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마을의 문화축제나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염리동 마을기업의 성공요인

염리동 마을기업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성이다. 저자가 2011년 염리동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팸투어 행사에서 “태풍이 오는데도 그것을 뚫고 서해안 염전을 방문하는 극성을 보이기도 했다.”며 “수 차례 천일염 생산지 고창·영광·무안을 방문했지만 즐겁고 재미있었다.”고 할 만큼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3년간에 걸쳐 시행된 천일염생산지인 영광고창을 방문하는 팸투어 행사로 이 행사를 통해 300여명의 염리동 주민이 천일염사업을 눈으로 봄으로써 사업의 적극적 참여자로 되었다.

세 번째는 소재의 선택이다. 천일염은 건강 관련

하여 중요한 식문화로 솔트커피, 아이스크림, 쿠키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며, 다양한 상품이 개발 가능한 아이템이다.

네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도입이 중요한 성공요인 중에 하나이다. 이런 의미에서 솔트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북카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랑방이다.

다섯 번째는 마을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의 수익모델이 사회적자본의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염리동 마을기업인 솔트카페의 수익은 “소금길” 등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가까이 솔트카페의 커피를 구매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내에서 지역주민들에 의해 충분히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저자가 염리동 주민자치위원회 분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람숫자에 대한 환상을 버린 것으로 소수라도 애정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것은 유럽의 협동조합이 구성될 때 중요시 하는 요인과 일맥상통한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의견을 조절해나가는 과정 또한 중요하였다. 이런 요소들과 염리동 마을기업의 성공요인이 결합된다면 타 지역에서의 마을기업도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승주, 염리동주민자치위원들이 공동으로 카페운영, 아시아뉴스통신, 2013.08.12

● 참고자료 ●

1.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염리동 마을이야기 프로젝트팀, 염리동마을이야기, 염리동주민자치위원회, 2009. 7
2. 농어촌자원개발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2차년도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2010. 9
3. 농어촌자원개발원,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3차년도 사업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 2010. 9
4. 송두범, 박춘섭, 김종수, 장효안, 홍은일, 충청남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와 해결 과제, 충남리포트, pp77, 2013
5. 신경희, 서울형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6. 이승주, 염리동주민자치위원들이 공동으로 카페운영, 아시아뉴스통신, 2013.08.12
7. 김남희, 달농네가 문화와 역사로 되살아나다, 여성신문, 2012.07.20

박진서 농학박사

소 속 : (주)정앤서컨설팅 기획이사

전문분야 : 농식품제품화 및 유통마케팅전략수립

E - mail : hapyjs@naver.com

T E L : 02-2625-0714